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0월 3주~10월 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○ 폴란드 재무부, 국채 1백억 즈워티 발행 성공(10.15)

- 폴란드 재무부는 총 6개 시리즈의 국채를 대상으로 1백억 즈워티 규모의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
- 이번 경매에는 총 176.7억 즈워티의 매수 주문이 몰려, 공급 대비 1.77배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
- 재무부는 당초 제시한 발행 목표 범위(60억~1백억 즈워티) 중 최대치인 1백억 즈워티 규모를 전액 발행
- PS0131 시리즈는 전체 수요의 25.7%, 전체 발행액의 29.4%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함
- OK0128 시리즈는 2.68배의 입찰 경쟁률로 투자자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
- DS1035 시리즈의 수익률은 5.387%, IZ0836 시리즈의 수익률은 3.102%로 각각 확정됨

○ 폴, 2025년 9월 말 누적 재정 적자 2,014억 즈워티 기록(10.15)

- 2025년 9월 말 기준, 폴란드 재정 적자는 2,014.35억 즈워티로 집계됨
- 이는 올해 재정 적자 계획 대비 69.8%를 기록한 수준
- 같은 기간 세입(Revenues)은 4,155.5억 즈워티로, 계획 대비 65.7% 달성
- 세출(Expenditures)은 6,169.85억 즈워티 기록, 계획 대비 66.9% 집행

○ 9월 폴란드 기업 고용 감소, 임금은 상승(10.21)

- 폴란드 통계청(GUS)에 따르면 9월 기업 부문(종사자 10인 이상)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0.8% 감소
- 반면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7.5% 상승, 월평균 총임금은

8,750.34 즈워티(약 344만원) 기록

- 폴란드 가족·노동·사회정책부는 9월 실업률이 5.6%로, 8월(5.5%)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
- 2025년 2분기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8.8% 증가한 바 있음
- 현재 최저임금은 월 4,666즈워티이며, 2026년 1월부터 약 3% 인상된 4,806즈워티로 조정 예정
- 고용 둔화 속에서도 임금 상승세 지속, 인플레이션 완화 및 노동 시장 구조 변화 영향으로 분석됨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크라이나 부동산 시장, 9월 반등세, 가격·수요·공급 모두 증가(10.22)
 - 9월 중 신규 건축물 4동이 완공되었으며, 지역별로는 리비우주 2곳, 키이우·흐멜니츠키·볼린주 각 1곳씩임
 - 신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m²당 평균 가격이 상승했으며, 키이우가 m²당 1,411달러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
 - 반면, 수미(Sumy)와 자포리자(Zaporizhzhia) 지역이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
 - 신규 주택 수요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, 체르니히우(+31%)와 키로보흐라드(+14%)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며, 자카르파타(-11.3%), 수미(-11%), 이바노프란키우스크(-10%)에서는 감소세를 기록
 - 기존 부동산 거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, 특히 키로보흐라드(+38%), 자카르파타(+22%), 미콜라이우(+21%), 리비우(+18%),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(+18%) 지역이 두드러짐
 - 2차 주택 가격도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며, 특히 서부 지역의 상승 폭이 컸음
 - 키이우의 경우, 1룸 아파트 평균 가격 US\$ 95,000 임
 - 2차 시장 수요는 흐멜니츠키(+35%)와 하르키우(+24%)에서 강세, 반면 리브네 지역은 -19%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

○ 맥도날드, 전쟁 중에도 30억 흐리우냐 이상 투자·지속 확장(10.23)

-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, 2022년 전면전 이후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20% 성장, 신규 매장 28곳 개설
- 2024년 고객 수 103백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% 증가, 이익도 23% 상승
- 2025년 현재 리비우, 우즈호로드, 무카체보, 브로바리, 키이우, 루츠크 인근 등지에 신규 매장 10곳 추가 개점
- 주요 확장 지역은 키이우 및 서부 지역 중심이나, 오데사 등 타 도시에서도 신규 프로젝트 추진 중
- 매년 9~10개 매장 신규 개설 목표 유지
- 2022년 이후 고속도로변 및 주유소 내 매장 개설 확대, 도심 외곽·주거지역 진출 강화
- 2024년 한 해에만 18억 흐리우냐(약 616억원) 투자, 전면전 이후 총 누적 투자액 32억 흐리우냐 이상 기록

○ 리비우 도심에 래디슨 프리미엄 호텔 건설 계획 추진(10.21)

- 부동산 개발업체 안타 그룹, 리비우 시내에 래디슨 호텔 신축 협상 중
- 프로젝트 면적 6,000~7,000m², 객실 수 약 100개 예정
- 래디슨 레드 브랜드로 4~5성급 호텔 계획, 건설비용은 유사 호텔 기준 25백만~35백만 달러 추정
- 객실 요금은 시즌 및 점유율에 따라 1박당 130~300달러 예상
- 투자 회수 기간 약 10~12년 예상
- 현재 우크라이나 내 래디슨 호텔은 키이우 3곳, 부코벨 1곳, 오데사 1곳(임시 휴업) 운영 중
- 리비우는 안전하고 비즈니스 중심지로 관광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평가
- 안타 그룹 설립자 안톤 타라넨코는 이번 사업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관광·레저 잠재력 인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강조
- 최근 우크라이나 레저 부동산 시장은 주로 국내 개발업체 주도로 크게 성장 중

○ 체르카시주, 정부 지원으로 14백만 유로 규모 사료 가공공장 건설 착수(10.22)

- 체르카시주 즈베니호로드카(Zvenyhorodka) 지역에 현대식 피드노바(Feednova Center) 공장 건설 시작
- 총투자액 650백만 흐리우냐(222.5억원) 규모로, 고단백 사료첨가제 및 동물성 지방 생산시설 중 국내 최대급으로 조성 예정
- 정부와 투자자 간 프로젝트 지원 협정 체결 예정
- 본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최초로 공학·교통 인프라 구축비 일부(약 59억원)를 국가가 보조하는 사례
- 본 시설은 2024년 리비우주에 준공된 제1공장(일일 150톤 처리능력)에 이어 두 번째 피드노바 가공공장으로서, 2026년 3분기 가동 목표
- 한편, 카르파츠키 미네랄니 보디(Karpatski Mineralni Vody)는 리비우주 졸로치우(Zolochiv) 지역에서 광천수 채취 3년 특별 허가를 26백만 흐리우냐에 취득
- 광천수 제조업체 카르파츠키 즈제렐나(Karpatska Dzherelna)도 리비우주 내 연간 2억 병 규모 음료 생산 제2공장 건설 중

○ 우 중앙은행, 금리 15.5%로 5회 연속 동결, GDP 성장률 전망 하향(10.24)

- 우크라이나 중앙은행(NBU)은 기준금리를 15.5%로 5차례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
-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으나, 인플레이션 기대가 여전히 높고, 에너지 부족 및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
-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안정, 흐리우냐화 예금 매력 제고, 중기적으로 물가를 5%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
- 아울러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.9%로 하향 조정, 올해 들어 네 번째 하향임
- 인플레이션 전망은 다소 개선되어, 2025년 9.2% → 2026년 6.6%

→ 2027년 5%로 점진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봄

- 커널 농업, 서부 지역 최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0억 투자 (10.15)
 - 커널 그룹 산하 체르니우치 솔라(Chernivtsi Solar)는 체르니우치주 키츠만 지역사회에 250MW 규모의 서우크라이나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
 - 총 212헥타르 부지에 조성되며, 현재 토지 및 투자 승인 등 모든 준비 절차 완료된 상태
 - 총투자액은 50억 흐리우냐(약 1,711억원), 25년 간 임대계약 체결됨
 - 건설 초기 단계에서 연간 지역 예산 수입은 8.6백만 흐리우냐로 추산되며, 향후 12백만 흐리우냐까지 증가 예상
 - 현재 발전소 설계 마무리 단계이며, 2026년 봄에 1단계 설치 공사 착공 예정
 - 커널 기업은 전쟁 전 세계 해바라기유 생산량의 약 7%, 수출량의 약 12%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생산 및 수출 기업으로 평가됨

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애플, 폴 서 40MW 규모 태양광 발전 전력 장기 구매 계약 체결(10.14)
 - 미국 IT 기업 애플은 폴란드 북서부 서포모제주 레스코(Resko)에 새로 건설되는 4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75%를 19년간 장기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
 - 해당 발전소는 이스라엘 재생에너지 기업 에코에너지(Ecoenergy)와의 가상 전력구매계약(Virtual PPA)을 통해 추진되며, 올해 말 가동 예정
 - 애플은 유럽 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, 스페인, 루마니아,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유사 프로젝트 진행 중
- 폴란드, 파산 에너지 공장에 방산 생산라인 구축 계획(10.14)
 - 폴란드 정부는 파산한 라파코(Rafako) 에너지 공장 부지에 방산 트럭 제조업체 엘치(Jelcz)의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 발표
 - 총리 도날트 투스크는 “이번 투자는 폴란드 안보에 직접적으로

기여하는 수익성 있는 계획"이라며 국방산업 확대 의지를 강조

- 엘치는 국영 방산기업 집단 PGZ 산하, 폴란드 군 차량 대부분이 엘치 제품으로 구성
- 신규 생산라인은 5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전망, 지역 고용 안정 및 라치부시(Racibórz) 시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 기대
- 라파코는 유럽 최대 보일러 생산업체 중 하나였으나, 올해 초 파산 선고
- 정부는 주요 자산 보호를 위해, 지난 4월에 7억 즈워티 규모 구조 패키지를 발표했으며, 국영 기업들과 함께 '라치부시 부품공장 (RFK)' 설립
- PGZ는 라파코 부지를 인수·전환하기 위한 의향서 서명, 1,500~2,000m² 규모의 산업용 건물 5개를 입찰 방식으로 취득 예정
- 해당 시설 현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군 방어력 강화를 위한 '나레프(Narew)' 방공 프로그램 예산으로 추진

○ **Boryszew, 토론에 폐기물 발전소(WtE) 플랜트 건설 허가 획득(10.14)**

- 폴 산업그룹 Boryszew(보르쉐프)는 토론(Toruń)에 연간 230백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열처리 에너지 회수 시설 건설을 위한 인허가를 획득
- 해당 시설은 전기 및 열을 동시 생산하는 고효율 열병합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며, 설비 용량은 7MW 이상
- 총투자비는 166백만 즈워티로 추산, 2027년 가동 목표

- 본 사업은 Boryszew의 2025~2029년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

- Boryszew 그룹은 자동차 부품, 금속 가공, 철강, 산업용 화학제품 분야 활동 중, 유럽·아시아·미주 전역에 35개 생산공장과 6개 R&D 센터 보유

○ **PKP PLK, 2025년 입찰 계획 270억 즈워티로 대폭 상향 조정(10.15)**

- 국영 철도 인프라 관리회사인 PKP PLK(Polskie Linie Kolejowe SA)는 2025년 입찰 계획을 대폭 상향 조정함
- 당초 2025년 입찰 예정액은 160억 즈워티(약 6.29조원)였으나, 이를 270억 즈워티(약 10.6조) 규모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현재까지 약 260억 즈워티 규모의 입찰이 발표되었음

- 2026년 입찰 계획 규모는 현재 약 95억 즈위티임

○ **Orlen, GA Polimery Police 전면 인수를 위한 제안서 제출(10.15)**

- Orlen은 폴리프로필렌 생산단지를 운영하는 자회사 Grupa Azoty Polyolefins(GAP)의 지분 100% 인수를 위한 비구속적(non-binding)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발표

- 제안 내용에 따르면, Orlen은 GAP의 모든 자산을 부채 및 현금 없는 상태(cash-free, debt-free basis)로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, 제안 금액은 1,022백만 즈위티(약 4천억원)

- Orlen은 또한, GAP의 채권 및 청구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, 다른 주주들로부터 잔여 지분을 매입할 계획임

- 현재 Orlen은 GAP 지분의 17.3%를 보유 중

- 이번 인수 제안은 조건부 비구속적 제안으로,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, 거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

- 그루파 아조티 측은 “제안 내용을 검토할 예정”이라고 밝힘

○ **폴란드, 베우하투프(Bełchatów)를 제2원전 후보지로 선정(10.15)**

- 투스크 총리는 중부 폴란드 피오토르쿠프 트리부날스키(Piotrków Trybunalski) 주민 간담회에서 “제2원전 후보지 중 베우하투프가 최우선 고려 대상”이라고 발표

- 베우하투프는 현재 폴란드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, 탈탄소 전환 및 에너지 구조 재편의 상징적 부지로 평가

- 정부는 후보지 관련 기술·환경 분석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, 조만간 공식 입지 결정 예정

- 투스크 총리는 북부 발트해 연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언급하며, 내년 전기요금이 정부 보조 없이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

- 투스크는 CPK 및 제1원전 건설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폴란드 기업 참여를 우선 보장해야한다는 방침 강조

- 이번 발언은 총선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현장 행사에서 이루어졌으며,

에너지 전환 및 국내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

- **CPK 신공항, 올해 건설 허가 신청 가능, 2026년 착공 목표 (10.17)**
 - CPK CEO 필립 체르니츠키, CPK 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서명 시 올해 안에 공항 건설 허가 신청 가능하다고 발표
 - 개정안은 수용 절차 및 보상 간소화, 1심 결정의 즉각 집행 허용 등 투자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이 포함,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 대기 중
 - 체르니츠키 대표는 모든 허가 신청 서류가 이미 준비되었으며, 대통령 서명 직후 즉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
 - 올해 중순부터 공항 터미널 예정지 지반 강화 작업(파일링) 착수 예정, 2026년 본격 착공 가능성 현실적
 - 바라누프·비스키트키·테레신 지역에 위치한 공항은 1단계에서 연간 34백만 명 수용 목표, 고속철도 연계 포함 총사업비 1,317억 즈워티
 - 2032년까지 공항 완공 및 바르샤바-CPK-우치 간 고속철 1단계 개통 예정
- **폴 재무장관, 미국과 SMR·LNG 협력 및 원전 건설 논의(10.17)**
 - 폴 재무장관 도만스키, 美에너지장관 라이트와 소형모듈원자로 (SMR), LNG 공급, 첫 대형 원전 건설 진척 상황 등을 논의
 - 도만스키 장관은 “원자력은 폴란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이며, 폴란드 기업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 미국과 기술 협력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힘
 - SMR 관련 협력 확대에 대해 “폴란드와 미국 기업 간 유망한 협력 기회가 있다”고 평가, LNG 공급 확대도 협의
 - 한편 폴란드 국책은행 BGK는 세계은행과 원전 프로젝트 재정 지원 가능성 논의, 세계은행 측은 관심 표명
 - BGK는 “원전 건설은 대규모 투자로, 최종 사업·재무 모델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”이라며, 폴란드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독려
 - 첫 원전은 최대 1,200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성, 폴란드 에너지

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예정

○ 폴-리투아니아 연결 고속도로 '비아 발티카' 신규 구간 개통(10.20)

- 10월 20일, 리투아니아 칼바리야(Kalvarija) 구간 개통식 개최, 폴란드 대통령 나브로츠키(Karol Nawrocki)와 리투아니아 대통령 나우세다(Gitanas Nausėda) 참석
- 비아 발티카(Via Baltica)는 바르샤바 - 카우나스 - 빌뉴스를 거쳐 라트비아·에스토니아를 통해 핀란드로 이어지는 유럽 핵심 교통 회랑 중 하나
- 폴란드 구간은 고속도로(Expressway) 표준, 리투아니아 구간은 모터웨이(Motorway) 표준으로 건설
- 본 노선은 폴란드-리투아니아 국경의 부드지스코(Budzisko)까지 약 310km(폴란드 구간 기준) 연결
- 전략적 군사 중요성 보유, 나토(NATO) 병력 이동의 핵심 통로로 평가되는 '수왈키 갭(Suwałki Gap)'을 통과
- 동 노선 완전 개통으로 발트 3국과 유럽 본토 간 도로 연결성 및 물류 효율성 대폭 향상 기대

○ 폴란드 총리,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 압박 대신 러에 전쟁 중단 압박 촉구(10.19)

- 투스크 폴 총리는 19일 “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를 압박해서는 안되며, 우리는 모두 러시아에 전쟁 중단을 압박해야 한다”고 강조
- 그는 “양보는 결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”고 덧붙이며,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
- 같은 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을 시사
-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고려 중이라며, “그는 뭔가를 차지할 것이다. 이미 많은 영토를 얻었고, 승리한 셈”이라고 발언
-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-푸틴 간 17일 통화에서 푸틴이 자포리자·헤르손 일부 지역을 포기하는 대신 도네츠크 전역 통제를 요구했다고 보도
- 이는 지난 8월 미·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의 요구보다 축소된 조건으로,

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를 '진전'으로 평가

-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해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우크라, EIB 150백만 유로 프로그램으로 300여 개 지역 677건 재건사업 신청(10.22)

- 이번 프로그램론은 우크라이나 긴급대출프로그램, 재건프로그램 및 재건프로그램 III의 2회차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, 사회기반시설, 주택, 공공시설 재건과 지방자치단체 주택 공급 사업이 지원 대상
- 재건프로그램 III는 최전선 지역의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지원, 국고 보조금 형태로 최대 5백만 유로를 지원함
- 공동체는 최소 23% 이상 자부담이 원칙
- 신청 건수 가운데 223건은 난방, 상수도, 하수도, 분산형 발전망 관련 사업이며, 국내 실향민 주택 건설 사업 4건도 포함
- 지역별 신청 건수는 리비우 60건, 키이우 53건, 하르키우 50건, 오데사 47건, 폴타바와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가 각각 42건
- 현재까지 128개 사업이 승인되어 104백만 달러가 배정 및 진행중

○ 일본 수출신용기구(NEXI),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위한 전쟁위험 보험 확대 의사 표명(10.23)

- 일본 수출신용기구(NEXI), 우크라이나 대표단과의 회담 후 우크라 재건 사업 관련 전쟁위험보험 확대 준비 완료 입장 밝혀
- 현재 NEXI는 일본의 對우크 수출·투자 중 약 절반 규모를 보장 중
- 양측은 투자 및 수출보험 협력 확대 방안 논의, 일본의 자금·기술 유입을 통한 산업·인프라 재건 촉진이 핵심 목적
- 주요 논의 주제는 전쟁 위험 보험 확대, 보험료 보전, 일본 장비 공급을 통한 산업 복구, 주택건설 보증, 폴란드 KUKE·영국 UKEF 등 타 수출신용기관과의 협력 강화
- 한편, INGO 보험사는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키이우 소재 전자

제품 체인 물류창고에 대해 20백만 흐리우나 보험금 지급, 피해 기업의 손실 복구 및 영업 재개 지원

○ UNDP,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개발 위해 16.5백만 유로 규모 신규 사업 착수(10.15)

- 유엔개발계획(UNDP)과 우크라이나 개발부는 '재생에너지 솔루션 (Renewable Energy Solutions)'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협약 체결
- 총사업비는 16.5백만 유로 규모로, 학교·병원·유치원 등 사회기반 시설에 태양광 패널, 히트펌프, 배터리 시스템 설치 예정
- 전력망 불안정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, 특히 전선 인접 지역에 큰 효과 기대
- UNDP는 본 사업이 친환경 복구와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여하고, 교육·보건 서비스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
- 우크라이나 개발부는 "에너지 독립은 전략적 목표이자 당장의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"라고 강조

○ 키이우, 공공·주거건물 830곳에 태양광 설비 설치 추진(10.13)

- 키이우 시의회는 정전 시 백업 전원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주거용 건물 830여 곳에 태양광 발전소(총 발전용량 약 178MW) 및 에너지 저장장치(배터리) 설치 계획 승인
- 병원, 유치원, 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에는 배터리를 함께 설치하여 최소 4~6시간 독립 운영 가능토록 할 예정
- 재원은 시 및 국가 예산, 민간 투자자, 국제 금융기구 등에서 공동 조달 예정
- 이미 키이우에서는 산부인과병원(120kW), 병원(100kW), 주거 건물 등 100여 건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으며, 정전 시 엘리베이터, 펌프 등 주요 설비에 전력 공급 중
- 일부 주거용 설비는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며, 정전 대응뿐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자립 기반 확대에 기여

○ 우크라 국영은행, EBRD와 협력해 100MW 이상 전력 생산설비

개발 지원(10.16)

- 우 국영은행인 오샤드뱅크, EBRD와 협력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233억 규모 대출 신청 접수, 이 중 218억 집행 완료
 - 러시아의 지속적인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 속에서, 중소기업의 에너지 자립 수요 급증 - 태양광 및 비상전력 설비 설치 확대
 - 해당 금융 프로그램은 대출과 함께 10~30% 보조금(최대 30만 유로)을 제공하며 친환경 사업, 기존 기업, 국내 실향민 기업 등에 우선 지원
 - 최대 대출 한도는 300만 유로이며, '5-7-9%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'을 통해 2150백만까지 최대 10년 대출 가능(자기자본 비율 20%)
 - 오샤드뱅크는 “에너지 안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”라며 자립형 전력 솔루션 확대 지원 의사 강조
- **우크라, 올해 1G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준공 예정(10.22)**
- 우크라이나 의회 에너지위원회 헤루스 위원장, 분산형 발전 및 대체에너지 개발 현황 발표
 - 2024년에는 800~9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, 2025년에는 1GW 이상 신규 설비 준공 예상
 - 풍력 발전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며, 건설 주기가 길어 본격적인 준공은 2026년부터 본격화 전망
 - 2025년 내 500MW(저장용량 1000MWh) 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 가동 예정, 2026년에는 1,000MW·25백~30백MWh 수준으로 확대 계획
 - 1~30MW 규모의 가스 피스톤·가스터빈 발전소 건설도 병행 중이나, 효율성은 가스 및 전력 가격 변동에 좌우
 - 태양광 발전 확충이 산업용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며, 우크라 산업 운영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 중
- **푸틴, 트럼프에 “전쟁 종식 조건은 도네츠크 완전 양도” 요구(10.19)**
- 워싱턴포스트(WP)는 17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“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전역을 러시아에 넘겨야 전쟁을 끝

낼 수 있다”고 밝혔다고 보도

- 대신 러시아는 자포리자·헤르손 지역 일부 점령지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으며, 이는 지난 8월 앵커리지 회담 당시 요구보다 축소된 조건
- WP는 이 제안에 대해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“부분적 진전”으로 평가했으나, 우크라이나 측은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전함
- 도네츠크는 키이우 방어에 전략적으로 핵심인 지역으로, 우크라이나는 해당 지역 양보가 러시아의 서진 재침공 위험을 높일 것이라 판단
- 트럼프 측 사절인 위트코프는 18일 우크라이나 측에 “도네츠크 주민 다수가 러시아어 사용자”라며 영토 이양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
- 젤렌스키 대통령은 “합의 자체에는 열려 있지만, 푸틴의 완고한 입장이 최대 장애물”이라며 러시아의 전제조건을 문제 삼음
- 트럼프는 해당 제안에 대해 공식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0(262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10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주간 거래조건 협의 지연으로 용역계약 연장 검토중 (10월말 → 12월중)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
- (주요동향) EPC 관련 보증 회수(107백만유로)로 중재절차 착수 예상

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KIND, 남동발전, 베올리아, BHI
- (사 업 비) USD 490백만
- (사업기간) 2026.2.~2054.12. (건설 38개월, 운영 20년)
- (주요내용) 전기 121MWe,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(추진현황) '23.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
'24. 1월~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(F/S 비공모 컨설팅지원)
'25. 10월 타당성 재검증 용역 실시 (남동발전)
'25.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예정
'26. 2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
'29. 4월 COD

- (주요동향) 사업주 간 협의 및 타당성 재검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의위원회 부의 예정

③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리스 필 공항 현대화 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차 시 하수 처 리 시설 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착수 예정 ('25.4분기)